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소매판매 호조, TSMC 호실적, 금리 상승 등으로 전강후약

미국 증시 리뷰

17일(목)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소매판매 서프라이즈, TSMC 호실적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였으나, TSMC 재료 소화 이후 금리 상승 부담에 장 후반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37%, S&P500 -0.02%, 나스닥 +0.04%)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컨센서스(0.3%)와 전월치(0.1%)를 모두 상회, 전년대비로는 1.7%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전월치(0.1%)를 상회. 한편, 주간 신규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4.1만 건을 기록하며 전주(26.0만 건) 대비 하락. 다만, 주간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6.7만 건을 기록하며 전주(185.8만 건) 대비 상승.

유로존 9월 CPI 확정치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며 지난 예비치(1.8%)와 8월 확정치(2.2%) 대비 둔화,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유로존 CPI는 2%선을 하회. 에너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CPI 확정치 또한 전년대비 2.7% 상승하며 8월 확정치(2.8%) 대비 하락,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품목이 1.76%p로 가장 크게 기여한 반면, 에너지는 -0.60%p로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는 요인.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회의에서 3대 핵심 ECB 금리를 25bp씩 인하하기로 결정, 지난 6월, 9월에 이어 3번째 금리 인하 결정 단행.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재융자 금리는 기존 3.65% → 3.40%, 한계대출금리는 기존 3.90% → 3.65%, 예금금리는 기존 3.50% → 3.25%로 인하. ECB 통화정책설명문에 따르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 지표 부진이 금번 금리 인하 결정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언급.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엔비디아(+0.89%), 애플(+0.16%), 마이크로소프트(+0.14%), 메타(+0.02%), 아마존(+0.34%)는 제한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알파벳(-1.35%), 테슬라(-0.20%)는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는 대체로 경기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발표. 먼저,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전월비 기준 헤드라인(0.4%), 코어(0.5%) 모두 컨센서스(헤드라인 0.3%, 코어 0.1%)를 상회하며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 이와 더불어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26.0만 건) 대비 하락한 24.1만 건을 기록하고, 미국 3분기 GDP 나우도 기존 3.2% → 3.4%까지 상향 조정. 월 초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이후 금번 소매판매 지표도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며, 그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경기 침체 내러티브는 이전보다 한층 더 완화.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9월에 이어 세번째 금리 인하(25bp 인하)를 단행하며 유럽 증시의 투자심리를 개선. 전일 발표된 유럽 9월 CPI는 전년대비 1.7% 상승하며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2%선을 하회. 이처럼, 금번 ECB의 금리 인하 결정은 유럽의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경기 지표가 부진한 점이 주된 배경이라고 언급. 한편,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약 70%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스탠스를 전환한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여건도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한편, 연이은 미국의 경기 지표 서프라이즈는 경기 연착륙 기대감과 동시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동시에 후퇴시키며 전일 미 증시는 전강후약으로 마감 특히, 지난주 발표된 미국 CPI도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시장은 재차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실제로, Fed Watch상 11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기존 93.7% → 65.3%로 하락한 반면, 금리 동결 확률은 6.3% → 34.7%로 상승하며 이를 반영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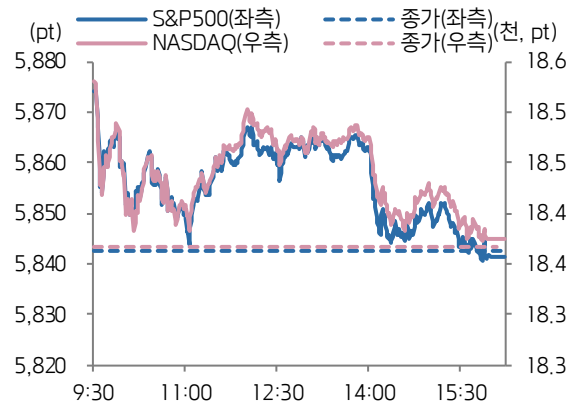
TSMC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및 양호한 가이드언스에 힘입어 전일 9.7% 상승. TSMC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54.2% 증가. TSMC에 따르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은 AI형 매출 비중 증가에 기인하며 AI 수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자극. 최근 마이크론, ASML, TSMC 등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강력한 AI 수요를 언급하는 가운데 AI 테마의 시장 주도주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17일(목) 국내 증시는 TSMC 호실적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헬스케어, 2차전지, 자동차 업종 등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반도체 상승분을 상쇄한 영향으로 양 지수는 약보합 마감 (코스피 -0.04%, 코스닥 -0.10%)

금일 국내 증시는 거래대금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전중 발표될 중국 실물 지표에 증시 민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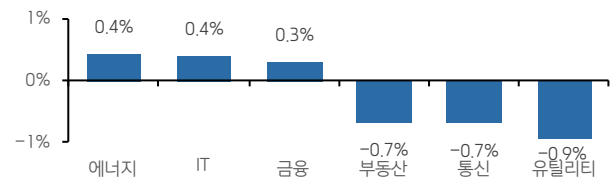
최근 중화권 증시는 연이은 부양책 발표 이후 급등세가 마무리되며 일부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 특히, 전일 발표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당초 계획의 약 2배 수준인 4조위안 규모로 발표했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며 실망 매물 출회. 이처럼, 시장참여자들의 중국 부양책 규모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번 발표될 중국 실물 지표 발표와 이에 따른 부양책 기대감이 중화권 증시에 반영될지에 주목해야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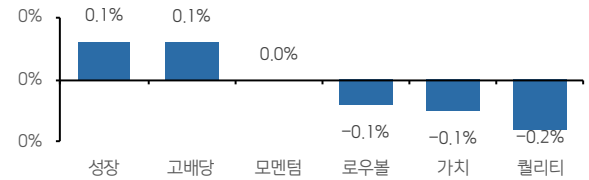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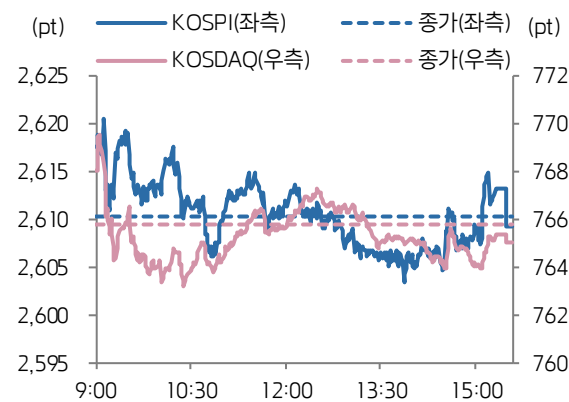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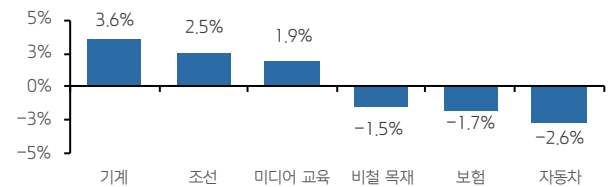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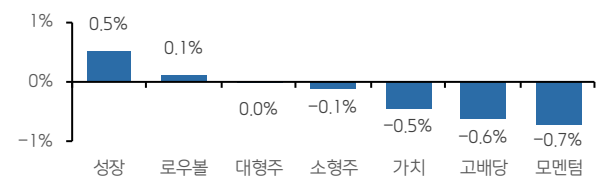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2.15	+0.16%	+21.04%	GM	49.38	+0.75%	+38.59%
마이크로소프트	416.72	+0.14%	+11.42%	일라이릴리	917.12	+0.08%	+58.1%
알파벳	162.93	-1.35%	+16.93%	월마트	80.89	-0.41%	+55.43%
메타	576.93	+0.02%	+63.48%	JP모건	224.42	+0.35%	+35.08%
아마존	187.53	+0.34%	+23.42%	엑손모빌	120.35	-0.26%	+23.47%
테슬라	220.89	-0.2%	-11.1%	세브론	151.20	+1.66%	+4.67%
엔비디아	136.93	+0.89%	+176.56%	제너럴일렉트릭	80.89	-0.4%	+55.4%
브로드컴	181.53	+2.66%	+64.37%	캐터필러	394.49	+0.22%	+35.08%
AMD	156.25	+0.08%	+6%	보잉	155.31	+0.26%	-40.42%
마이크론	112.05	+2.57%	+31.69%	넥스트에라	83.78	-0.7%	+4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09.30	-0.04%	-1.73%	USD/KRW	1,372.70	+0.6%	+6.58%
코스피200	347.73	+0.14%	-2.87%	달러 지수	103.78	+0.18%	+2.41%
코스닥	765.06	-0.1%	-11.71%	EUR/USD	1.08	-0.29%	-1.88%
코스닥150	1,292.57	-0.19%	-7.24%	USD/CNH	7.14	+0%	+0.16%
S&P500	5,841.47	-0.02%	+22.47%	USD/JPY	150.21	+0.38%	+6.5%
NASDAQ	18,373.61	+0.04%	+22.4%	채권시장			
다우	43,239.05	+0.37%	+14.72%	가격	DTD(bp)	YTD(bp)	
VIX	19.11	-2.4%	+53.49%	국고채 3년	2.898	+2.3bp	-24.7bp
러셀2000	2,280.85	-0.25%	+12.52%	국고채 10년	3.037	+3.2bp	-13.8bp
필라. 반도체	5,204.81	+0.95%	+24.65%	미국 국채 2년	3.972	+3.4bp	-27.8bp
다우 운송	16,332.69	-1.39%	+2.73%	미국 국채 10년	4.091	+7.8bp	+21.2bp
상해종합	3,169.38	-1.05%	+6.54%	미국 국채 30년	4.390	+9.4bp	+36.1bp
항생 H	7,179.44	-1.22%	+24.46%	독일 국채 10년	2.208	+2.4bp	+18.4bp
인도 SENSEX	81,006.61	-0.61%	+12.13%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4,947.30	+0.79%	+9.42%	WTI	70.67	+0.4%	+0.03%
MSCI 전세계 지수	852.22	+0.11%	+17.22%	브렌트유	74.45	+0.31%	-3.36%
MSCI DM 지수	3,735.29	+0.18%	+17.86%	금	2,707.50	+0.6%	+25.34%
MSCI EM 지수	1,144.04	-0.49%	+11.75%	은	31.77	-0.63%	+31.92%
MSCI 한국 ETF	62.39	-0.76%	-4.79%	구리	432.50	-0.97%	+11.17%
디지털화폐				BDI	1,676.00	-5.1%	-19.96%
비트코인	66,934.02	-1.01%	+57.46%	옥수수	406.75	+0.49%	-19.22%
이더리움	2,597.45	-0.78%	+13.81%	밀	590.00	+0.85%	-11.81%
				대두	990.00	+1.02%	-20.53%
				커피	255.15	-1.1%	+3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